

## □ 建議書 및 答辯書

◎ 일자 : 2005.7.14

◎ 수신 : 교육인적자원부장관(기초학문지원과장)

◎ 제목 :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국내학술지 전자이용 활용방안에 대한 건의

◎ 건의 내용

1.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제57차 정기총회(2005.6.17-18, 목표대학교 개최)에서 제시된 '국내 학술지 전자이용 유료화에 따른 부당성과 대안제시'라는 안건에 따른 견의를 하고자 합니다.
2. 현재 각 대학은 국내 학회지를 구독할 때 각 학회에 학회비를 지불하고 있으며, 그 인쇄저널에 대한 전자이용은 한국학술정보(주)등의 영리기관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.
3. 국내 학술지 전자이용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으로는
  - 가. 국내 학술지 전자이용을 위하여 인쇄저널과는 별도의 비용 지출
  - 나. 전자이용 서비스 제공기관인 영리기관의 계약자로써의 적법성 문제
    - o 한국학술정보(주)등의 영리기관이 각 저작자의 권리와는 무관한 학회와 일괄계약을 맺고 전자이용 서비스 유료 제공 (붙임1 참조)
  - 다. 정보공유의 필요성
    - o 학술논문이나 보고서는 그 자체가 상업적 이윤보다는 연구자의 업적 공유나 학술토론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이므로 '정보접근'과 '정보활용'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,
    - o 정부(학술진흥재단)의 보조로 지원받아 발행하는 학회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학회에 인쇄저널 구독비와 영리기관에 전자이용에 따른 DB구독비를 별도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 됨
4.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정부나 특정 기금의 지원으로 발행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Open Access를 적용하여 학술정보의 공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(붙임2 참조)
5. 학술진흥재단 등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대학이 무료로 국내학회지를 전자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.  
아울러, 합법적인 절차로 계약되어 서비스중인 학술지도 정부 지원금으로 무료로 전자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.

◎ 견의 답변 내용

1. 정부지원 학술지 등 저작물에 대해 대학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 요청  
답변 : 학술지의 경우 전체 발행 비용의 20-30%를 학술연구조성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어, 전체 저작권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며,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결과에 대하여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한국정보원을 통해 무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민간회사와 합법적으로 계약되어 서비스 중인 학술지에 대한 정보 지원금으로 무료화 추진 요청  
답변 : 민간회사와 학회 등 학술단체가 발행 학술지에 대해 전자 서비스 계약을 맺은 사항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며, 사인 간의 계약에 불구하고 정부가 무료 서비스를 실시할 수 없음.
3. 우리부 향후 계획
  - 학회지 등 학술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 및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'05년 하반기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,
  -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 및 학술정보유통시장의 건전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.